

이 지역만의 부드러운 바위에 새겼기 때문에 이런 얼굴이 된 것이구나.



지오 가이드

이렇게 부드러운 표정의 얼굴인데 사실은 화난 표정이구나.



후코지 절

1 후코지 절 마애불

후코지 절 마애불은 부동명왕을 중심으로 한 삼존상으로 중앙의 거대한 불상이 부동명왕, 오른쪽이 금갈라 동자, 왼쪽이 제타가 동자입니다.

부동명왕은 변발을 늘어뜨리고 오른손에는 검을, 왼손에는 건삭을 든 분노의 상으로 표현되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표정의 인상이 있어 분노의 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입가에는 상하로 송곳니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 화난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.

이 부드러운 표정의 얼굴은 원래부터 그랬



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약 800년간 비바람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매우 부드러운 표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.

12만년 전의 바위와 부동명왕

분고오노 지오 파크에는 9만년 전 아소산이 일으킨 대화쇄류가 굳어진 아소-4 용결 응회암을 많이 볼 수 있으며, 많은 마애불이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다. 아소산은 9만년보다 더 이전에도 거대 분화를 반복하고 있었고, 대략 12만년 전에도 대분화를 일으켰습니다. 이때도 대규모 화쇄류를 내뿜어 주위를 덮은 후 서서히 식어 굳어졌습니다. 이 굳어진 바위가 아소-3 용결 응회암이라 불리고 있습니다. 후코지 절의 아소-3 용결 응회암은 용결(굳어지는 방법)이 약해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부동명왕의 얼굴이 부드러운 것은 이 영향 때문이었습니다.

후코지 절과 마애불, 수국

후코지 절의 별명은 '아지사이 절(수국절)'로 불릴 정도로 많은 수국이 있습니다. 장마철이 되면 수많은 수국 꽃에 둘러싸인 마애불을 볼 수 있습니다.

이 수국들은 절과 지역민이 보호하고 있습니다.



아소산 대분화의 흔적, 아소 용결 응회암의 분포

아소산은 과거 4번의 큰 분화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. 이때 발생한 화쇄류가 식어 굳어져 남긴 아소 용결 응회암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.



약 27만년 전의 대분화



약 14만년 전의 대분화



12만년 전의 대분화



9만년 전의 대분화

2 커다란 불감과 3 나게코미도

마애불 왼쪽의 커다란 불감에는 대일여래를 모신 사당과 가케즈쿠리(산, 절벽, 호숫가 등에 일부가 돌출된 구조) 무대가 있고, 그 안쪽에는 나게코미도 '호마당(부동명왕 앞에서 불을 피워 재앙이나 악업을 불태워 없애는 의식)'이 있습니다. 이것들은 에도 시대(1603~1868년) 때 만들어졌다고 하며, 후코지 절이 오랫동안 수행의 장소로 유명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암굴 안의 암면에는 많은 검은 점이 보이는데 이것은 스코리아라 불리는 경석의 한 종류로 이 바위가 원래 화쇄류였던 것을 나타내는 귀중한 증거입니다.

12만년 전 자연이 만들어 낸 현상과 사람들의 수행이 합쳐져 만들어진 후코지 절의 경내는 돌의 우연한 만남이 절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.

발발 주의

계단 주의



포토존 표지 사진은 여기에서 촬영하였습니다.

1

2

3